

[시험 후기]

제2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주 현 빈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27)



I. 들어가며

지난 2013년 1월 4일부터 5일간 제2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기로 재학 중인 저도 당연히 응시 하였습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 후기라니 좀 막막하지만, 제 나름의 공부

방법과 실전에서의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입니다만, 대학교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7년간 법학이라고는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실질적 비법학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학 시절에 선배들로부터 법학공부에 대하여 들었던 풍월이 있는지라, 1학년 때부터 크게 해매지 않고 삼년간 목표를 향해 일로정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이야기들은 제가 겪고 생각한 것일 뿐이니,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 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II. 실전준비와 실전

1. 실전을 위한 준비

저는 3학년 내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전에 잠자는 것을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공부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낮에 치는 것이니까, 올빼미 습성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3년 동안 달리는 장기 레이스의 마지막이니까, 컨디션 유지를 위하여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시, 11시. 제대로 지킨 날은 1년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나를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여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 리트 시험 때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시험 당일 날 시험시간에 졸았던 경험이 있는지라, 이 문제에 더 예민했었습니다. 미리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어보기도 하고(수면제는 사람에 따라 몸에 맞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명상 음악, 수면 유도 어플 등을 다 이용해 봤지만, 쉽게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항불안제라는 ‘자낙스정’을 처방 받았는데, 이거 먹고서야 잠을 잤습니다.(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의존증도 별로 없다고 하니, 복용하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보다 자낙스정이 다음 날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덜 했습니다.

시험 공부 막바지에 이르러서 체력적인 문제를 느끼신다면, 한약 보다는 영양 링겔을 추천합니다. 저는 걸보기와는 다르게 부실한 관계로, 학교 다니는 삼년간 매분기마다 영양 링겔을 한 대씩 맞으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험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중간 휴식일이 일요일에 겹쳐 있어서, 휴식일을 이용해 병원을 가거나, 약국 따위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반창고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실 전

객관식 시험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도중, 틈틈이 시간 체크를 하면서 문제 푸는 속도를 조절하였기에 겨우 겨우 마지막까지 풀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모의고사를 치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들이 '모두 고르시오' 형태가 많았고, 지문들이 긴 편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례형은 특별히 예상외의 논점이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답안지의 분량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였고, 위에서 말한 것 같은 글쓰기 연습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형은 형사법과 공법은 무난한 주제에 무난한 양식을 물어보는 형태여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민사법은 작성하여야 하는 양식은 무난하였으나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민사법 기록형을 푸는 데에는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을 목차로 하여, 관련 논점들을 정리해 두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 중 세시간이 넘어가는 시험들은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만, 그건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전에는 커피같이 이뇨작용을 활발히 일으키는 음료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식사도 평소의 절반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물도 조금만 섭취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파는 포도당 캔디를 준비해 두었다가, 시험 도중에 계속해서 먹어 주었습니다. 다만, 시험 중에 포장지를 부스럭 거리는 것은 좀 그러니, 미리 까서 수험표 위에 올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Ⅲ. 공부방법

실전을 치르고 난 지금, 지난 3년간의 로스쿨에서의 학습에 관해 나름대로의 감회를 변호사시험을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1. 기본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학을 접하는 비법학사들은 법학서적의 크기에 놀라고 수많은 종류의 기본서(교과서)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무슨 책을 봐야 좋은 건지' 인터넷 게시판에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각자가 알려주는 것들이 다 다르고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기본서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만 집니다. 대세라는 책은 또, 왜 그리도

여러 종류인지...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관문은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의 1회독일 것입니다. 분량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당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되지 않으니, 진도도 잘 안 빠지고 스스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조건 읽어 나가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혹시 남들은 다른 책을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보는 책만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수만 가지 걱정이 생기겠지만, 그냥 읽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대세라는 얘기를 듣고 고른 책이면, 그걸 기본서로 삼고 공부하여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추천을 받아서 이것저것 교과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1학년 내내 이리저리 책만 바꾸면서 책꽂이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머릿속은 백지인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1회독은 누구나 힘듭니다. 저기 저 잘나가는 우수한 분들도 1회독 하실 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가 될 만큼, 법학은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저 꼭 참고 읽고 또 읽어, 머릿속에 교과서 내용의 흔적 정도라도 남겼다면, 첫 관문은 통과하신 겁니다.

2. 선택형과 사례형 대비 공부

(1) 선택형

기본서를 1회독 하셨으면, 기본서를 한 바퀴 더 돌리셔도 좋지만, 저는 선택형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서를 읽는 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고, 애매하기만 했던 개념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물어서 설명을 듣고도,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끄덕 끄덕 아~’ 하시지 말고, 선택형 문제집 풀어보세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저절로 잡힐 겁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면 수많은 판례를 접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해설에 있는 판례들은 차근차근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출 지문으로 나온 판례라면, 전문을 구해서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문제집 해설에 있는 정도는 읽어보고,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판례에서 사용하는 문체나 미묘한 니앙스 같은 것도 익혀두면, 사례형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점수는 표준점수 변환 없이 그대로 합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의 점수는 표준점수로 변환이 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의 시험생이라면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받은 점수는 크게 변별력을 갖고 작용하지 못

하는 반면에,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수에 따라 석차가 갈리게 됩니다. 올해는 실용시자 대비 75%의 합격률이 될 거라 하지만, 내년에는 합격률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형 점수만큼 자신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택형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택형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못해서 손해를 본 케이스라죠)된 말이나 하면, 우리가 공부한 법학이론만으로는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객관식 기출 문제집 풀다보면, '이 지문은 그 자체만으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때마다, 문제가 저질이라며 비웃어주고 넘어 갔습죠. 그런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객관식 기출지문으로 나온 것은 그 지문 자체로 익혀두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판례에서 앞뒤 상황 다 잘라내고 발췌한 것이어서, 저 문장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에서 맞는 지문이라고 했다면 그건 맞는 지문인 겁니다. 그 문제는 '판례의 앞뒤 상황도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를 때 이건 맞는 지문이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출제되면 정답에 이의신청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외워두세요. 그게 선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입니다.

(2) 사례형

기본서도 일회독 했고, 선택형 기출 문제집도 한 바퀴 돌리셨으면, 사례형 시험을 준비해야겠죠. 사례형 시험에 대비한 교재는 가능하면 앞서 선택하였던 기본서를 저술하신 교수님의 책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법리에 관한 학설의 첨예한 대립을 명확하게 파악할 실력이 안 되는데, 각 교수님들마다 취하시는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대세라고 추천받았던 책을 저술한 교수님이라면, 다른 학설들은 모르더라도 그 분의 태도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그 때문에 사례형에서 점수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저술한 내용들을 보면서, 덮어 놓고 외우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사례형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에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답안을 작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신의 학설만을 실어 두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교수님들의 학설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형 준비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 연습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최소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반까지의 시간동안에 끊임없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답안지 분량을 채워 낼 수 있습니다. 볼펜을 지탱하는 손

가락에 굳은살이 튼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글쓰기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답안지 한 장씩 쓰는 걸 목표로 매일 같이 훈련하십시오.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형 칠 때가 되면, 문제의 답을 알면서도 손이 아파서 답안지를 못 채우게 됩니다. 좀 둘러보시면, 답안 작성에 유리하다며 인기 있는 필기구도 있으니, 미리 미리 손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치는 내내 생각했던 게, ‘이건 시험이 아니라 거의 학대에 가깝다. 꿈에라도 다시는 치기 싫다!!’였습니다. 이젠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다시 치는 꿈을 꾸게 생겼네요.

3. 후사법 공부 (민소, 형소, 행정법, 상법)

사실 학교 수업이나 독학으로 후사법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로스쿨의 삼년과정은 기본삼법을 제대로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추천합니다. 사법고시 2차를 위한 강의는 조금 과한 면이 많고 (아직 변호사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작은 논점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강의는 너무 암기 위주라서 비추천 합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거냐... 작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위한 후사법 강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으니, 그걸 구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 한 바퀴씩 빠르게 돌리면서, 자신만의 요약집을 완성하시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 요약집을 위주로 리마인딩하는 정도로만 준비하셔도, 후사법 과목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IV. 마지막으로

3기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시험 지방 실시 꼭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토박이 부산 사람으로,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낯설었던 데다가, 시험을 위해 단기로 얻었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가지고 갔던 책들과 최종정리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요약노트가 일부 소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 소모한 비용도 백만원이 넘습니다. 교통비, 그 교통비와 맞먹는 택배비용, 방값, 식비... 그나마 물갈이는 하지 않고, 시험을 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만 시험을 치는 말도 안 되는 조건도 화가 나는데, 막상 고사장에 가보니,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교 학생들이더군요. 적어도 자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는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 줄 거라 믿었던만... 자기의 생활의 근거지에서 시험을 친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 일인지는 안 꺾어보시면 모릅니다. 시험을 코 앞에 두고, 방 구하고, 짐 싸고, 왔다갔다 하며 낭비하는 시간까지... 막상 시험 중에 쌓이는 피로도에도 있어서도, 자교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과 타 지

방에서 올라와 시험 치는 사람들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우스개 소리로 '이거 부산에서 시험 치는 거면, 5점은 더 받을 거다'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막상 치고 나니 5점이 아니라 10점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전체 로스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방 실시가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공정한, 공평한 실시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기분들이 지방 실시해야 한다며 말하고 다닐 때, 저들이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며 구경만 한 사람입니다. 3학년이 되어서도, 헌법소원도 걸고 한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제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에 제가 친 시험에서의 불리함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겪어보니 말도 안될 만큼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3기, 4기분들도 저 같이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다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천 갔던 일, 썩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과천집회라도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디 3기부터는 지방 실시가 되길 빌어 봅니다.